

“감사기능 강화하겠다”

안 장관, ‘제식구 감싸기’ 지적...교과부 감사관 외부 공모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는 교육계 비리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강력한 쇄신 의지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감사기능 강화, 6월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집중 점검 등 교육비리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교육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계에 널리 퍼져있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교육계 구성원들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교과부 감

사관을 공개모집해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감사업무에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용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장(4급)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 일정한 자격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시도교육청 감사기구도 개방임용 강력권고...학부모 감사참여
방과후학교 선정비리, 서울 초등학교 교장 4명 직위해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표준안 마련...심사기능 강화

외부인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교육청 및 각급학교 현장에서 ‘줄서기’ 등의 폐단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한다.

안 장관은 “자기 직위를 더럽히

는 독직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선거와 관련해 자칫 흐트러질 수도 있는 현장 분위기를 집중 점검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초·교과부 제1차년도 같은 날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도별로 철저한 교육

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방식을 바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대학교수와 교원, 학부모 등을 확립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만 들도록 지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방과후학교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서울 초등학교 교장 4명을 직위해제 했다. 이들은 모 업체를 영여와 컴퓨터과목 방과후학교 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7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고속 기소 됐다.

그러나 교과부가 밝힌 감사기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지 감사관 한 명을 외부인사로 바꾼다고 해서 감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가 얼마나 그 효과를 발휘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안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공사자재 공개경쟁으로 구매한다

서울시교육청, 구매방식 변경...특정업체 선정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공사 자재구매 방식이 공개입찰방식으로 바뀐다. 공사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특정업체 자재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의 하나로 앞으로 관련 교육청과 각급학교가 시설공사를 하면서 특정업체의 자재를 구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시설공사

를 할 때 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기관과 같이 일반적인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해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공사 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업체의 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자재구매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공사대상 건물이나 시설의 주요 이용자가 학생들로서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확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

나 이 같은 특정업체의 자재를 구매하는 행위가 있다면 공사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교육청은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재구매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동안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공무원과 업체관계자 사이의 유착 등 비리 발생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환 기자 ski@eduyonhap.com

위기학생의 벗, ‘Wee’가 있습니다

서울 성등교육청, ‘Wee’ 센터 문을 열어...서울서 6번째

서울 성등교육청(교육장 백일순)은 2월 5일 관내 장안초등학교에 ‘성등 Wee센터’를 열었다.

서울에서 여섯 번째로 문을 연 ‘성등 Wee센터’는 약 230㎡ 규모로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를 두고 가정과 및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 학생들의 진단, 상담, 치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게 된다.

‘Wee’ 센터는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Wee 프로젝트(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로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과 치료 등 지원활동 이외에도 학교 내 학습부진, 집단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학교 폭력, 미디어 중독,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생활과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문을 여는 ‘성등 Wee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용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멘탈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멘탈 케어 시스템’은 영상과 컴퓨터 그래픽, 기능성(치료) 음악,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허브 향 등을 결합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시스템이다. ‘성등 Wee센터’는 시설 구축은 교육청이 맡고, 운영은 전문기관인 청소년희망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원균 장학사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6개 Wee센터 가운데 시설은 교육청이 담당하고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한 첫 사례로서, 시설 면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멘탈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 학생과 학교부적응 학생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나눔의 행사 신한금융그룹은 6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보육시설 어린이 85명을 초청해 ‘설날 맞이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그들 일직일 자원봉사자 85명과 보육시설 어린이 85명 등 170여명이 함께 강원도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바로바로 겨울 축제’에 참여해 산헌어, 빙어 낚시와 명절 맞이 연 만들기 및 연 날리기 등의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직원과 직원 자녀, 보육시설 아동 3명을 한가족으로 구성해 단체 생활을 하는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가족 단위의 야외 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인/편집인 한승균
우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구독문의/대표번호 (업무국) 032-433-1633 (편집국) 032-433-4633 (광고국) 032-433-0633 FAX 032-433-5633
포천지사 031-542-8353 호남본부 062-654-1633
구독료: 한달 10,000원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인천다06002호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스승과 제자, 기적을 이룬다

경기 동백고 김성태 교사, 체대입시 지도 전원 합격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체육계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모두를 대학에 합격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수험생 모두 사교육 없이 학교와 교사의 지도만으로 합격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기 용인 동백고등학교(교장 김유성)는 학교 체육교사인 김성태 교사가 지난해 학교에서 체계적인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도를 통해 양현준(고려대), 김의환(성균관대), 임혜지(경희대) 등 지도 학생 전원(14명)을 모두 대학에 합격시키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김교사는 올해로 개교 3년째를 맞는 학교가 개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의 지도에 열정을 쏟으며 특히 체대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동백체대입시반’을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지도를 실시했다.

김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학지도로 체대입시를 위한 필수적인 학력수준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성공요인이 그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입시환경속에서 체대입시정보와 입시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진학지도에 반영함으로써 대상 학생이 학교와 교사의 지도만으로 합격했다는 생각이 이들을 설득해 학업과는 달리 기초체력 위주의 체력 훈련을 고집스럽게 계속했고 이 같은 노력은 진학결과로 나타나 12명이 수시전형으로 조기합격하는 등 14명 모두가 대학에 합격했다.

대부분의 예체능계 입시가 학교가 아닌 전문 입시학원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 없이 내신 최하위권의 학생들을 지도해 거둔 성과로 예체능계 교육과 진학지도에 있어 하나의 대안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김래승 기자 kls@eduyonhap.com

경기 청심국제고, 올림피아드 수상 학생...상금 장학금으로 내놓아

올림피아드 상금이 장학금으로 아름답게 변신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수상한 상금을 장학금으로 내 놓았다.

◆ ‘Wee 프로젝트’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합성어이며,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위기학생과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 이들의 학교적응력을 키워주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단과 상담, 치료와 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 사업은 3단계(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로 구성되며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1,530개 각급학교에 Wee 클래스(학생 상담교실)가 설치돼 있으며, 80개의 Wee센터가 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7일 기숙형 Wee스쿨(대안학교) 3개교를 올해까지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와 아산에 설립 예정인 Wee스쿨은 고등학교 과정, 충북 진천 Wee스쿨은 중학교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 입상금 50만원을 2월 3일 경기 가평교육청(교육장 배진환)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들은 ACG라는 이름의 팀을 만들어 지난 해 올림피아드에서 ‘생활 속의 창의적 문화콘텐츠 - 골드버그 장치부품’에 출전해 경기도 금상(예선), 올림피아드 동상 및 미국대사관상을 수상했다.

팀이름 ACG는 학교의 건학이념-‘이타적 품성(Altruistic)’, ‘창의적 지식(Creative)’, ‘글로벌 리더(Global)’을 뜻한다.

본사사령	
김만용 호남본부 취재기자	정덕진 호남본부 취재기자
2010년 2월 10일자	

산부지 요리전문점

낙지세상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매콤한 맛!
맛과 향을 만족 시키주는 - 낙지세상

단체예약환영

계남고가 사거리

프리미엄 시네마 | GS백화점

맥도널드 | 낙지세상 | 강릉점 | 공영주차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2-16
대표전화 : (032)328-9090 핸드폰 : 019-209-9305

사업자 여러분의 성공비즈니스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광고세무법인 인천지점

대표 세무사 조명석

복잡한 세무, 회계 관련 업무 광고세무법인 인천지점에서 쉽게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시는 업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 세무상담**
 - 부동산 관련 세무서비스
 - 개인 재산 관리 및 자문
 - 기타 세무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과 관리
- 02 기장대리 등 각종 세무대리업무**
 -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 각종 세무신고대리
- 03 조세분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인동 832-1 남동상권빌딩 501호
TEI : 032)817-8620 FAX : 032)817-8623

사무공간의 새로운 변신
행복한 꿈을 이루는 공간 아모스

AMOS

정부 조달물자(OA행정용품시스템) 인증사: 정부투자기관·학교·공공기관·기업

숨쉬는 사무가구
AMOS (주) 아모스아인스가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5번지
대표전화 : (032)563-2700 | 팩스 : (032)563-5291